

'디지털과 만난 장인정신' 라만의 하이브리드작업

기사입력 2011-12-13 12:39

<이영란 기자의 아트&아트>

요즘 이 작가만큼 전세계 미술계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작가도 드물 것이다. 그 것도 이제 막 데뷔한, 서른 두살의 젊은 작가가 말이다.

네덜란드 출신의 디자이너 요리스 라만(Joris Laarman · 32)이 그 주인공이다. 데뷔한 지 5년여 만에 '세계 디자인계 신데렐라'로 급부상하며 디자인관련 상(賞)이란 상은 거의 휩쓸다시피 한 요리스 라만이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대표 이현숙)에서 13일 개인전을 개막했다. 세련되고 산뜻한 작품만큼이나 외모도 수려(?)한 라만이 한국에서의 첫 전시를 위해 최근 내한했다.

요리스 라만이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은 단아한 선과 파격적인 형태를 함께 지닌 '본 체어'(Bone Chair), '스탈링 테이블'(Starlings table) 같은 작품 때문. 지난 2008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열린 '디자인과 유연한 정신'전에 '본 체어' 등을 출품한 라만은 젊은 작가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MoMA에 작품이 곧바로 소장되는 영예를 안으며 유명세를 얻었다. 뉴욕 MoMA는 개념이나 디자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라만의 남다른 의지를 높이 평가한 것.



지극히 섬세한 디자인이면서도 강렬한 미감을 선사하는 라만의 예술가구는 디자인 및 제작과정에서 큰 변혁을 시도하며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창출하고 있다. 라만은 3차원 모델링 기술에 근간을 두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창조된 생명과학을 결합시켜 가구를 디자인한다. 이를테면 '본 체어'의 경우 자연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뼈와 나무의 비율을 컴퓨터 디자인에 대입시켜 만든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알고리즘을 가구에 차용한 것인데, 이는 재료의 할당을 최적화하고 일련의 과정을 최소화해 무게감과 안정성을 얻음으로써 간결하면서도 파워풀한 디자인을 가능케 했다.

때문에 라만의 작업은 '디지털 공예(Digital Crafts)'로 불린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장인정신을 융합시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인다는 점. 그리곤 자신의 이름을 딴 랩을 만들고, 혁신적인 디자인 플랫폼 '메이크 미(Make Me)'를 출시했다.



라만의 디자인은 혁신성과 전통성을 아우른다. 디테일에 관해선 단 0.1mm 오차도 허용치않을 정도로 치밀하지만, 미감에 있어선 무모할 정도로 파격적이다. 동시에 작가는 "자연의 섭리는 내 작업의 원천"이라며 종교적으론 자연과 우주에 디자인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고백한다. 라만에게 '올해의 혁신가상(賞)'을 수여한 월스트리트저널은 "라만의 작업은 비가시적인 과학의 논리와 디자인적 장식성을 고르게 융화했다"고 평하고 있다.

총 23점이 출품된 이번 한국 전시에는 라만의 대표작인 '본 체어', '본 체이즈'를 비롯해 '암 체어'(Arm Chair) 등 2006~2010년에 제작된 6종의 에디션 작품이 모두 나왔다. 또 2011년 작품인 잎 테이블(Leaf Table) 등 신작 16점도 전시됐다.



라만은 네덜란드의 디자인아카데미 에인트호벤을 수석으로 졸업(2003년)했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2006년) 등을 수상했다. 현재 플로스, 비트라, 스와로브스키 등과 협업 중이며, 폰피두센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드 등 유수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세련된 작품만큼이나 용모도 수려한 서른두 살의 작가는 그 뛰어난 재능을 무기로 오늘도 전세계를 누비며 유쾌하게 작업 중이다. 국제갤러리에서의 라만 전시는 내년 1월 20일까지 계속된다. (02)735-8449



<사진설명=(위에서부터) 요리스 라만 Arm Chair, 2008, Marble resin 75×80×100cm.Photo by Jon Lam, NYC,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요리스 라만 Bone Chaise, 2006, Polyurethane-based resin,148×77.3×103cm.Photo by Jon Lam, NYC,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요리스 라만 Leaf Table,2010,73×201.9×201.9cm.Photo by Jon Lam, NYC.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요리스 라만 Forest Table, 2010, Resin,Steel and Aluminum, Photo by Casper Rila,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제공=국제갤러리 >

이영란 [선임기자/yrlee@heraldcorp.com](mailto:yrlee@heraldcorp.com)

UR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1213000607&md=20120317051945_BL